유치원 아동 어머니의 행위에 따른 자녀의 구강건강관리실태 조사연구

송혜정

마산대학 치위생과

색인 : 어머니 구강보건행위, 자녀 구강보건, 구강건강관리

송혜정 경남 마산시 내서읍 용담리 100번지 마산대학 치위생과(우 630-729)
전화 : 055-230-1273, E-mail : so2147@hanmail.net

1. 서론

치아우식증이란 치질에서 무기질이 이탈되고 유기질이 파괴되어 생기는 질환으로 일단 발생된 치아우식증은 완전하게 치유되지 않아서 반드시 후유증을 남기는 연소자에 있어서 가장 주된 치아발거원인질환이다[1].

우리나라의 경우 유치우식증은 중대구강병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2000년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2] 결과 5세 아동의 83%가 치아우식증을 경험하였고 그 외에 진 등[3]의 연구에서는 64%, 최 등[4]은 79.6%, 박 등[5]의 연구에서는 90.6%로 나타났다. 특히, 유치우식증은 영구치아의 악골발육과 아동의 심신 발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유치에서 발생되는 우식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데[1] 충전하는 방법으로는 높은 수준의 구강건강을 확보할 수 없고 가급적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도록 하고 윤리적, 경제적, 보건학적 입장에서 3차예방법보다는 2차예방법으로 관리하고 2차예방법보다는 1차예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6].

치아우식증의 예방법으로 가장 많이 실행되고 있는 것은 올바른 잇솔질과 치실의 내산성을 증대시켜주는 불소도포, 당분섭취의 횟수 제한, 치면열구전색 등을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잇솔질은 형성된 치면세균막을 제거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7].

그러나 유아는 스스로 자기의 구강건강을 관리할 능력이 없어 2-5세의 유아를 담당하는 일반치과의사는 구강건강 관리 방법을 어머니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유치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탕 섭취를 가급적 제한하도록 우선 어머니에게 강조하여야 한다[1].

www.kci.go.kr

가정에서의 어머니는 아동의 구강건강관련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치과의료 이용에도 결정자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어머니가 어떠한 구강보건행태를 가지고 있는냐에 따라 아동의 구강보건행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8].

오 등[9]의 연구에서 어머니는 아동의 구강건강신념, 구강보건행태, 잇솔질 횟수, 치과의료 이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류 등[10]은 유아들의 구강건강에 어머니의 구강보건행동이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최 등[11]에서도 어머니의 구강건강지식 수준이 높으면 자녀의 치아우식증 발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 등[12]은 부모와 관련되는 요인이 전적으로 아동의 구강관리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처럼 많은 선행연구에서 유아의 올바른 구강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유아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어머니의 구강관리에 대한 태도와 신념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의 구강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 어머니의 구강보건행위와 사회 경제적 특성에 따라 유아의 구강보건행위와의 관련성을 규명하여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건사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남 마산시에 소재하는 4개 유치원을 임의선정하고 각 유치원에 재원중인 4-7세 유아 및 유아 어머니 306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방법

연구 자료는 2007년 1월 5일부터 1월 25일 동안 설문지를 작성하여 유치원 유아들에게 가정통신문과 함께 설문지를 배부한 후 유아 어머니가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한 후 2주 후에 역시 각 유치원을 통하여 회수하였다.

총 430부에서 332부(77%)가 회수되었고 그 중 기재 항목이 없는 26부를 제외한 306부(95%)를 연구 분석하였다.

2.3 자료분석 방법

입력된 연구 자료는 SPSS 12.0을 이용하여 어머니와 자녀의 일반적인 특성, 어머니와 자녀의 구강건강관리실태, 어머니와 자녀의 식이섭취는 빈도분석을 하였고 어머니의 치과방문 기간에 따른 자녀의 구강건강관리실태와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자녀의 구강건강관리실태를 항목별로 χ^2 - test를 실시하였다.

www.kci.go.kr

3. 연구성적

3.1 어머니와 자녀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어머니와 자녀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1>과 같다. 먼저 자녀의 연령은 7세(38.2%), 6세(28.8%), 5세(24.2%), 4세(8.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연령은 30-34세가 48.7%, 35-39세가 41.2%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자녀의 성별은 남아가 56.2%, 여아가 43.8%로 조사되었다.

어머니 직장 취업 여부는 미취업이 69.0%로 취업자(31.0%)에 비해 많았다.

표 1. 어머니와 자녀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백분률(%)
자녀의 연령	4세	27	8.8
	5세	74	24.2
	6세	88	28.8
	7세	117	38.2
어머니의 연령	25-29세	13	4.2
	30-34세	149	48.7
	35-39세	126	41.2
	40-45세	18	5.9
자녀의 성별	남자	172	56.2
	여자	134	43.8
어머니 직장	취업	95	31.0
	비취업	211	69.0
합계		306	100.0

3.2 어머니의 구강건강관리실태

어머니의 구강건강관리실태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우선 잇솔질 횟수는 3회 이상이 60.8%, 2회가 38.2%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잇솔질 방법은 위, 아래로가 48.4%, 윗니는 위에서 아래로, 아랫니는 아래에서 위로 한다는 응답이 44.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간식 후 잇솔질 여부는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1%로 매우 높았으며, 불소배합세치제 사용은 불소가 들어있다는 응답이 70.3%로 나타났다.

최근 치과 방문 목적은 방문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46.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치료가 39.5%였고, 정기검진을 위한 방문은 11.1%에 그쳤다.

치과 방문 기간은 2년 이상에 한번이 35.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1-2년 미만(31.4%), 6개월-1년 미만(23.5%) 등의 순으로 나타나, 치과에 자주 다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스켈링을 받은 기간은 2년 이상(61.4%), 1-2년 미만(29.4%), 6개월-1년 미만(9.2%)의 순으로 나타났다.

www.kci.go.kr

표 2. 어머니의 구강건강관리실태

구 분		빈도(명)	백분률(%)
잇솔질 횟수	1회	3	1.0
	2회	117	38.2
	3회 이상	186	60.8
잇솔질 방법	옆으로	22	7.2
	위, 아래로	148	48.4
	윗니-위에서 아래로, 아랫니- 아래에서 위로	136	44.4
간식후 잇솔질	한다	67	21.9
	안한다	239	78.1
불소배합세치제 사용	불소가 들어있다	215	70.3
	불소가 들어있지 않다	27	8.8
	잘 모르겠다	64	20.9
최근 치과방문 목적	방문한적 없음	142	46.5
	정기검진	34	11.1
	치료	121	39.5
	보철	9	2.9
치과방문 기간	6개월 이내	29	9.5
	6개월-1년 미만	72	23.5
	1-2년 미만	96	31.4
	2년 이상	109	35.6
스켈링 받은 기간	6개월-1년 미만	28	9.2
	1-2년 미만	90	29.4
	2년 이상	188	61.4
합 계		306	100.0

3.3 자녀의 구강건강관리실태

자녀의 구강건강관리실태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자녀의 잇솔질 횟수는 2회가 52.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3회 이상(39.5%), 1회(8.2%)의 순이었으며, 자녀에 대한 잇솔질 교육은 잇솔질 교육을 한다는 응답이 95.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잇솔질 시 도움은 스스로 한다는 응답이 53.3%로, 보호자가 도와준다는 응답(46.7%)에 비해 조금 더 많았으며, 불소배합세치제 사용은 불소가 들어있다는 응답이 68.3%로 높게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2.9%로 비교적 많았다.

자녀의 불소도포 경험은 없다는 응답이 70.6%로 있다는 응답(29.4%)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www.kci.go.kr

표 3. 자녀의 구강건강관리실태

구 분		빈도(명)	백분률(%)
자녀의 잇솔질 횟수	1회	25	8.2
	2회	160	52.3
	3회 이상	121	39.5
자녀 잇솔질 교육	있음	291	95.1
	없음	15	4.9
자녀 잇솔질시 도움	스스로 한다	163	53.3
	보호자가 도와준다	143	46.7
불소배합세치제 사용	불소가 들어있다	209	68.3
	불소가 들어있지 않다	27	8.8
	잘 모르겠다	70	22.9
자녀의 불소도포 경험	불소적용 있음	90	29.4
	불소적용 없음	216	70.6
합 계		306	100.0

3.4 어머니와 자녀의 식이

어머니와 자녀의 식습관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어머니의 식사횟수는 3회 이상이 76.8%, 2회가 21.9%였으며, 어머니의 치아 우식간식 횟수는 1회가 71.6%, 2회가 21.9%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치아 보호 및 청정간식 횟수는 1회가 5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2회(36.3%), 3회 이상(13.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정규식사 횟수는 3회 이상이 93.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녀의 우식간식 횟수는 1회가 45.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2회(41.8%), 3회 이상(12.8%)의 순이었고, 보호 및 청정간식 횟수는 2회(45.1%), 1회(35.9%), 3회 이상(19.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어머니와 자녀의 식이

구 분		빈도(명)	백분률(%)
어머니의 식사횟수	1회	4	1.3
	2회	67	21.9
	3회 이상	235	76.8
어머니의 치아우식 간식 횟수	1회	219	71.6
	2회	67	21.9
	3회 이상	20	6.5
어머니의 치아보호 및 청정간식 횟수	1회	153	50.0
	2회	111	36.3
	3회 이상	42	13.7
자녀의 정규식사 횟수	1회	1	.3
	2회	19	6.2
	3회 이상	286	93.5
자녀의 우식간식 횟수	1회	139	45.4
	2회	128	41.8
	3회 이상	39	12.8
자녀의 보호 및 청정간식 횟수	1회	110	35.9
	2회	138	45.1
	3회 이상	58	19.0
합 계		306	100.0

www.kci.go.kr

3.5 어머니의 치과방문 기간에 따른 자녀의 구강건강관리실태

어머니의 치과방문 기간에 따른 자녀의 구간건강관리실태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자녀의 잇솔질 횟수는 하루 3회 이상의 경우 1년 미만에 한번 치과를 방문하는 집단(45.5%)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자녀의 불소배합세치제 사용 역시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여, 치과방문 기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녀에게 불소를 도포해 준 경험은 1년 미만에 한번 치과를 방문하는 집단은 40.6%가 자녀에게 불소를 도포해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년-2년 미만에 한번 방문하는 집단은 31.3%, 2년 이상에 한번 치과를 방문하는 집단은 17.4%만이 불소도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치과방문이 많을수록 자녀의 불소도포 경험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게 충치를 유발하는 우식간식 횟수와 치아 보호 및 청정간식 횟수는 어머니의 치과방문 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녀의 잇솔질 시 도움은 어머니의 치과방문 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바, 1년 미만에 한번 방문하는 집단의 경우 56.4%가 도움을 주는 반면, 1년-2년 미만에 한번 치과를 방문하는 집단은 44.8%, 2년 이상에 한번 치과를 방문하는 집단은 39.4%만이 도움을 준다고 응답하여, 어머니가 치과에 비교적 자주 다닐수록 상대적으로 자녀가 잇솔질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에게 잇솔질 방법을 교육한 경험은 1년 미만에 한번 치과를 방문하는 어머니들이 교육경험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www.kci.go.kr

표 5. 어머니의 치과방문 기간에 따른 자녀의 구강건강관리실태

구 분		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 이상		합계		χ^2 *df* (p)
		N	(%)	N	(%)	N	(%)	N	(%)	
잇솔질 횟수	1회	9	(8.9)	6	(6.3)	10	(9.2)	25	(8.2)	6.259 4 (.181)
	2회	46	(45.5)	60	(62.5)	54	(49.5)	160	(52.3)	
	3회 이상	46	(45.5)	30	(31.3)	45	(41.3)	121	(39.5)	
불소배합세치제 사용	들어있다	69	(68.3)	66	(68.8)	74	(67.9)	209	(68.3)	3.963 4 (.411)
	들어있지 않다	13	(12.9)	6	(6.3)	8	(7.3)	27	(8.8)	
	잘 모르겠다	19	(18.8)	24	(25.0)	27	(24.8)	70	(22.9)	
불소도포 경험	불소적용 있음	41	(40.6)	30	(31.3)	19	(17.4)	90	(29.4)	13.775** 2 (.001)
	불소적용 없음	60	(59.4)	66	(68.8)	90	(82.6)	216	(70.6)	
우식간식 횟수	1회	40	(39.6)	43	(44.8)	56	(51.4)	139	(45.4)	3.014 4 (.555)
	2회	47	(46.5)	40	(41.7)	41	(37.6)	128	(41.8)	
	3회 이상	14	(13.9)	13	(13.5)	12	(11.0)	39	(12.8)	
청정간식 횟수	1회	33	(32.7)	34	(35.4)	43	(39.4)	110	(35.9)	4.328 4 (.363)
	2회	50	(49.5)	47	(49.0)	41	(37.6)	138	(45.1)	
	3회 이상	18	(17.8)	15	(15.6)	25	(22.9)	58	(19.0)	
잇솔질 시 도움여부	스스로 한다	44	(43.6)	53	(55.2)	66	(60.6)	163	(53.3)	6.288* 2 (.043)
	도와준다	57	(56.4)	43	(44.8)	43	(39.4)	143	(46.7)	
잇솔질 방법 교육	있음	99	(98.0)	89	(92.7)	103	(94.5)	291	(95.1)	3.111 2 (.211)
	없음	2	(2.0)	7	(7.3)	6	(5.5)	15	(4.9)	
합 계		101	(100.0)	96	(100.0)	109	(100.0)	306	(100.0)	

*p<.05, **p<.01

3.6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자녀의 구강건강관리실태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자녀의 구강건강관리실태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불소도포 경험은 취업 집단의 경우 37.9%가 불소도포 경험이 있는 반면, 비취업 집단은 25.6%로 나타나 취업모들이 비취업모에 비하여 불소도포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자녀의 잇솔질 횟수와 잇솔질 교육방법, 자녀의 정규식사 횟수, 우식간식 횟수 등은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치아 보호 및 청정간식 횟수는 취업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바, 취업모에 비하여 비취업모들이 자녀에게 청정간식을 먹이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차이홈메우기의 경우 취업모들이 받겠다는 응답이 조금 더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www.kci.go.kr

표 6.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자녀의 구강건강관리실태

구 분		취업 N (%)	비취업 N (%)	합계 N (%)	χ^2 *df* (p)
불소도포 경험	불소적용 있음	36 (37.9)	54 (25.6)	90 (29.4)	4.775* 1 (.029)
	불소적용 없음	59 (62.1)	157 (74.4)	216 (70.6)	
잇솔질 횟수	1회	10 (10.5)	15 (7.1)	25 (8.2)	1.194 1 (.551)
	2회	50 (52.6)	110 (52.1)	160 (52.3)	
	3회 이상	35 (36.8)	86 (40.8)	121 (39.5)	
잇솔질 방법 교육	있음	93 (97.9)	198 (93.8)	291 (95.1)	2.312 1 (.128)
	없음	2 (2.1)	13 (6.2)	15 (4.9)	
잇솔질 시 도움	스스로 한다	59 (62.1)	104 (49.3)	163 (53.3)	4.322* 1 (.038)
	도와준다	36 (37.9)	107 (50.7)	143 (46.7)	
정규식사 횟수	1회	1 (1.1)		1 (.3)	2.234 2 (.327)
	2회	6 (6.3)	13 (6.2)	19 (6.2)	
	3회 이상	88 (92.6)	198 (93.8)	286 (93.5)	
우식간식 횟수	1회	37 (38.9)	102 (48.3)	139 (45.4)	3.274 2 (.195)
	2회	42 (44.2)	86 (40.8)	128 (41.8)	
	3회 이상	16 (16.8)	23 (10.9)	39 (12.8)	
청정간식 횟수	1회	46 (48.4)	64 (30.3)	110 (35.9)	9.567** 2 (.008)
	2회	33 (34.7)	105 (49.8)	138 (45.1)	
	3회 이상	16 (16.8)	42 (19.9)	58 (19.0)	
치아홈메우기 실천	받도록 하겠다	78 (82.1)	157 (74.4)	235 (76.8)	2.178 2 (.336)
	받지 않도록 하겠다	11 (11.6)	35 (16.6)	46 (15.0)	
	잘 모르겠다	6 (6.3)	19 (9.0)	25 (8.2)	
합 계		95 (100.0)	211 (100.0)	306 (100.0)	

*p<.05, **p<.01

4. 총괄 및 고안

유아건강은 전체 건강의 필수적 일부분이며 학교구강보건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세기 후반에 어느 나라도 따를 수 없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는데 이제 경제성장과 더불어 유아구강보건사업 또한 비례하여야 한다.

특히, 유아에서는 성인보다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사업의 효과가 현저히 크며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방법 중 상대적인 중요도를 보면 불소복용이 40%이고 불소도포법과 식이조절법이 각각 20%, 가정구강환경관리법과 전문가예방법이 각각 10%라고 알려져 있다[1].

그러나 현대는 가공식품의 발달로 인해 유아들의 설탕섭취가 증가하고 유아는 아직 미숙하여 자기의 구강환경을 스스로 관리할 수가 없다. 스스로 구강건강을 관리하지 못하는 유아들에게 올바른 식음습관

www.kci.go.kr

형성 및 부모가 직접 치아관리방법과 필요성을 인지하도록 교육하여 자녀에게 건강한 구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특히, 어머니는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사회적인 특수한 위치에 놓여 있으면서 가족의 건강과 구강건강 유지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어머니의 구강보건에 관한 지식, 태도 및 행동은 곧 가족 개개인의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13].

박과 이[14]는 어머니의 건강신념이 아동의 예방적 치과방문 횟수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고 공 등[15]은 모친의 구강보건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잇솔질 횟수가 많았다고 하였으며 김[16]은 유아들의 구강건강은 어머니의 구강보건행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머니의 행위가 유아의 구강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어 경남 일부 유치원을 임의로 선정하여 4-7세 유아 및 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실태와 어머니의 행위에 따라 유아의 구강건강관리실태와의 관련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어머니의 구강건강관리실태에서 하루평균 잇솔질 횟수는 3회 이상으로 최[11]가 조사 보고한 어머니들의 잇솔질 횟수 2.5회인 60%보다 많았다.

잇솔질 방법은 48.4%가 주로 위.아래로 하고 있어 올바른 잇솔질 방법을 어머니에게 교육하여 유아에게 정확한 잇솔질 방법을 교습시켜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다.

불소배합세치제 사용은 70.3%로 나타나 이[13]의 연구에서 나타난 60.9%보다 높았으나 불소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0.9%로 많아 향후 어머니를 대상으로 불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치아우식 예방에 있어 불소도포 못지않게 치면열구전색이 중요한데 안과 김[17]은 6세 유아의 치면열구전색율이 10.2%로 낮다고 하였고 최 등[4]도 치의원 치면열구전색법을 확대 시행하여 유치우식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최근 치과방문 목적에서는 46.4%가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이[18]의 연구와 같이 39.5%는 치료를 목적으로 구강진료기관을 방문하는 사례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치과 방문 기간과 스켈링 받은 기간이 2년 이상으로 각각 55.6%, 61.4%로 정기검진과 예방을 위한 검진은 잘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구강건강관리실태에서 하루평균 잇솔질 횟수가 2회 52.3%로 나타났고 박 등[19]에서도 1회 이상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53.3%가 보호자의 도움없이 혼자 이를 닦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이닦기의 효율성은 낮은 것으로 검토된다. 따라서 잇솔질 시 단순 횟수보다는 보호자의 지도와 함께 효율성이 더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녀의 불소도포 경험에서는 29.4%로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예방진료가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 류 등[10]은 예방을 목적으로 치과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어머니들의 자녀에게서 우식유치면지수가 현저하게 낮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예방적 원칙에서 볼 때 검진과 예방진료가 치료목적 진료에 비해 경제적, 효율적인 만큼 향후 구강보건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여 어머니들이 예방진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다.

치아우식증 예방의 하나로 당분 제한을 위해 식이조사를 한 결과 어머니, 유아 모두 식사횟수는 3회 이

www.kci.go.kr

상으로 각각 76.8%, 93.5%로 나타났고 우식간식 섭취보다 치아 보호 및 청정간식 섭취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치과방문 기간에 따른 자녀의 구강건강관리실태에서 어머니의 치과방문 시기가 짧을수록 자녀에게 불소도포를 많이 해주었고 잇솔질 시 자녀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치과방문에 따라 불소에 대한 설명을 자주 접하게 됨으로써 불소도포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았고 자녀 잇솔질 시 도움은 구강보건교육을 통한 자녀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적극성으로 사료되었다. 이[20]의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예방목적의 치과방문 횟수가 많으면 아동은 구강건강에 부여하는 중요성이 높아 아동의 검진 및 예방목적의 치과방문 횟수도 많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취업과 자녀의 구강건강관리실태와의 관련성은 취업모가 비취업모 보다 불소도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데 반해 공 등[8]은 취업모친은 비취업모친에 비해 중요성이 낮아 예방 및 검진 목적의 치과의료 이용횟수는 적었다고 하였고 이[21]는 세대주의 사회경제적 지위, 세대 소득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은 진단 및 예방목적 치과의료 이용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자녀들의 간식에서는 비취업모의 자녀들이 보호 및 청정식품을 더 자주 섭취하였는데 김 등[22]에서는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어린이의 우식경험지수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과정 중에 있는 유아와 어린이에게 있어 좋은 영양은 영양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식이습관이나 성격형성 중에서 대단히 중요하며 올바른 식이습관은 유아기나 어린이기에서 형성되어 청소년기에 거의 결정되어서 그 이후 성인의 식이습관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2]. 이와 신[23]은 청량음료와 스넥류의 섭취횟수가 많다고 응답한 아동에서 우식치아수가 많이 나타났다는 보고에 따라 취업모인 경우 간식으로 우식성 식품을 섭취할 기회가 더 잦다. 따라서 가정식이조절법과 가정구강위생관리법의 보급을 위한 구강보건교육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되어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어머니와 자녀의 잇솔질 횟수와 섭식습관은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어머니의 정기검진과 우식예방을 위한 자녀의 불소도포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예방진료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자녀의 불소도포, 잇솔질, 보호 및 청정식품 섭취는 어머니의 치과방문과 취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조사 대상이 일부 지역에서 선정된 유아 어머니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다양한 어머니의 구강보건행동에 따른 유아의 구강보건행동과의 관계를 각 지역 사이에서의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다.

향후 예방진료가 적은 어머니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통한 예방진료 확대와 모자를 위한 구강건강 프로그램 또한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구강보건행위와 사회 경제적 특성에 따라 유아의 구강보건행위와의 관련성을 규명하여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건사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경남 마산에 소재하는 일부 유치원 어머니 30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www.kci.go.kr

1. 자녀의 잇솔질 횟수는 2회 52.3%, 스스로 잇솔질을 한다 52.3%, 불소배합세치제 68.3%로 나타났다.
2. 자녀의 식사횟수는 3회 93.5%, 우식성 간식 섭취 1회 45.4%, 보호 및 청정간식 섭취 2회 45.1%로 나타났다.
3. 어머니의 치과방문 기간이 짧을수록 자녀의 불소도포 경험은 많았고, 잇솔질 시 부모 도움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p<.05).
4. 비취업모의 자녀가 잇솔질 시 부모 도움을 더 받았으며, 치아 보호 및 청정간식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p<.01).
5. 취업모의 자녀에서 불소도포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참고문헌

1. 김종배, 김광수, 김영희 외 4인. 공중구강보건학개론. 3판. 서울:고문사:2004:37-38,194-195.
2. 2000년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01.
3. 진보형, 이병진, 백대일. 서울시 구로구 일부 유아의 초기유치우식증 조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4;28(4)548-558.
4. 최성욱, 문혁수, 백대일, 김종배. 유아구강건강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0;24(4):369-385.
6. 김종배, 최유진, 백대일 외 5인. 예방치학. 4판. 서울:고문사:2005:15.
7. 권순석, 김치영, 이규선 외 11인. 공중구강보건학. 서울:명문출판사:2003:61.
8. 공만석, 이홍수, 김수남. 모친의 구강보건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6;20(1):31-53.
9. 오윤배, 이홍수, 김수남. 모친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구강건강신념이 아동의 구강보건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4;18(1):62-83.
10. 류경, 정성화, 김지영, 최연희, 송근배. 어머니의 구강보건행동과 지식이 자녀의 우식유치실태에 미치는 영향.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4;28(1):105-114.
11. 최연희, 서일, 권호근, 지선하. 어머니의 구강건강지식 및 행동과 자녀의 구강건강상태와의 관련성.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9;23(1):45-56.
12. 강현숙, 김경희, 정혜경. 부모의 아동에 대한 구강관리가 아동의 구강관리행위에 미치는영향.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000;13(2):319-329.
13. 이재화, 나수정, 김진범. 대도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정주부의 구강보건지식과 행동.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6;20(4):509-529.
14. 박득희, 이광희. 어머니의 건강신념이 아동의 건강신념과 치과의료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www.kci.go.kr

연구. 대한소아치과학회지 1994;21(1):335-344.
15. 공만석, 이홍수, 김수남. 모친의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과 아동의 구강보건행태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4;18(3):12-13.
16. 김연화. 유아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 및 행동에 따른 유아구강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5;5(1):15-26.
17. 안용순, 김미정. 성남시 보건소 유아구강보건사업 개발을 위한 구강건강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1;1(2):201-209.
18. 이경희, 신영미, 허성윤, 안용순. 5세 자녀를 둔 성남시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과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5;5(1):63-73.
19. 박진아, 마득상, 박덕영, 박호원, 이광수. 강릉시 5세 아동의 “조기 유아기 우식증” 관련 추정요인의 기술 역학적 연구. 대한소아치과학회지 2002;29(2):226-236.
20. 이홍수. 모친과 아동에서 구강건강신념과 구강건강관련행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6;20(1):11-30.
21. 이홍수. 모친의 구강보건행태와 사회경제적 요인이 아동의 치과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7;212(1):187-205.
22. 김재곤, 전철완, 이두철, 백병주. 어린이의 식이습관과 치아우식발생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소아치과학회지 2001;28(2):271-278.
23. 이은숙, 신승철. 유아의 구강건강관리 실태와 유치우식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6;20(3):369-380.

www.kci.go.kr

Abstract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oral health of the infants in kindergarten according to mothers' care

Hye-Jeong Song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Masan college

Key words : mother's dental hygiene care, children's orall health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basic data required for the development of dental hygiene project for babies by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dental hygiene activities and their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the dental hygiene activities of babies. The survey was carried out with questionnaire to 306 babies of ages from 4 to 7 years and their mothers, from January 5 to January 25, 2007, in 4 kindergartens in Masan, Korea.

The collected data was processed with SPSS v.12.0 for frequency analysis and χ^2 test per item, to obtain following conclusions.

1. The frequency of toothbrushing of children is two times, accounted for 52.3%, they brush the teeth by them, and accounted for 52.3%, Fluorine toothpaste 68.3%.
2. The frequency of meal of children is 3 times, accounted for 93.5%, they ingest cariogenic snack 1 time, accounted for 45.4%, and they ingest protective and detergent snack from dental caries 2 times, accounted for accounted for 45.1%.
3. The shorter the period of mothers' duration of visit to dentists, the more experiences of fluorine coating and help from parent in toothbrushing had the children ($p<.01$, $p<.05$).
4. Children of housewife mothers received help from parent in toothbrushing and take teeth care and clean snack more than those of working mothers ($p<.05$, $p<.01$).
5. The children of working mothers had fluorine coating more than those of housewife mothers ($p<.05$).

www.kci.go.kr

The fluorine coating, toothbrusing, protection and eating green food of babies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frequency of mothers' visit to dentists and occupation.

www.kci.go.kr